

성범죄자 교육기관 취업 무방비 '못된 짓' 밝힐 길 없다

2006년 청소년 성보호법 발효 이후 범죄만 공개

경기도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 등 어린이 대상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자 취업 제한과 신상공개를 골자로 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력자가 학교나 학원,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은 지난 2006년 6월. 이 법률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교원 예정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성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 확정 후 10년동안 학교, 학원·교습소, 유치원, 보육시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체육시설 등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성범죄 경력을 의뢰하더라도 법 시행 시기인 2006년 6월 이전의 성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조회를 의뢰

한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육기관 취업자가 2006년 6월 이전 확정된 범죄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기관에 범죄경력 조회가 통보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형 확정 후 10년동안 교육기관 취업 불가'라는 법조문과도 배치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

광주서부경찰 관계자는 "법률 시행 이후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기관들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오고 있지만 성범죄 경력이 있다고 통보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최소한 10년 전까지의 성범죄 사실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의 교육기관들이 교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는 것조차 모르는 것도 문제다. 최근 옛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이 전국 12개 시·군·구 소재 학원·교습소, 유치원 등 120곳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의

경우 전체의 21%(26곳)만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월 개정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3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사진과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개정된 법률의 발효일인 '올 2월 4일 이후 발생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확정판결을 받아 형집행이 종료된 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열람대상자는 사실상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아동 성폭력 상담기관인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신기숙 소장은 "법제·개정의 이유는 아동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때문인데 이런 방식이라면 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없다"며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아동 대상 범죄자들의 공통점이 수년 전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법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kps@kwangju.co.kr

일산 성폭행 미수 피의자 구속 이씨 "평생 짓값 치르겠다"

의정부지법 교양지원 이훈재 영장전담판사는 2일 초등학생 A(10)양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41)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이씨에 대한 영장실심사 후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강제철 지원장은 이와 관련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영장이 조금 늦게 청구됐지만 이날 오후 2시에 정상적으로 영장실심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44분께 교양시 대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아파트에 사는 초등생 A양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이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구속기한(10일) 만기 일인 9일째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는 영장실심사에서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해 가족에게 미안하다. 평생 짓값을 치르겠다"며 범행 후 처음으로 심경을 피력했다.

이씨는 주먹과 발로 초등생을 마구 폭행한 데 대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것 같다"면서 "커터칼을 가지고 만 있었지 사용하지 않았으며 다른 범행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영장 신청 전 이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흥기로 지목된 물건이 '커터칼'이라는 것과 '비상계단 또는 옥상에서 성폭행하려 했다'는 내용의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최권익기자 cki@연합뉴스

날씨 풀리자 '안전 풀린' 공사장

광주·전남 봄철 안전사고 잇따라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광주·전남지의 공사장 등에서 일을 하던 인부들이 다치는 등 봄철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4시30분께 장흥군 관산읍 고마리 축사 신축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문모(25)씨가 작업 도중 떨어진 목재에 발등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

같은 날 낮 12시30분께에는 목포시 금화동 주택에 사는 홍모(76)씨가 자신의 집 옥상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홍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낮 12시10분께 나주시 성북

동 N어린이집 인근에서 1t 트럭 안에 목재를 싣던 인부 박모(61)씨가 차에서 떨어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앞서 오전 10시40분께는 광주시 북구 양산동 K정비소 뒤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박모(40)씨가 7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유치를 기원하며 2박3일간의 도보순례에 나선 광주송원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90명이 2일 오전 출발지점인 광주시청 앞을 떠나고 있다. 이들은 광주를 출발, 장성 백양사를 거쳐 정읍 내장사까지 66km 구간을 걸어서 돌며 광주 U대회 유치를 홍보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후보에 돈받은 선거운동원 광주·전남 첫 적발

해남서... 수사 의뢰

18대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선관위에 적발됐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한 특정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해남의 모 정당인 A씨가

특정 후보진영에서 돈을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A씨가 현금 백만원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A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받은 목적 등에 대해 1차 조사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해남·진도·완도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영록 후보는 2일 성명을 내고 검찰과 선관위가 수사대상을 인적사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직졸 전문절도단 검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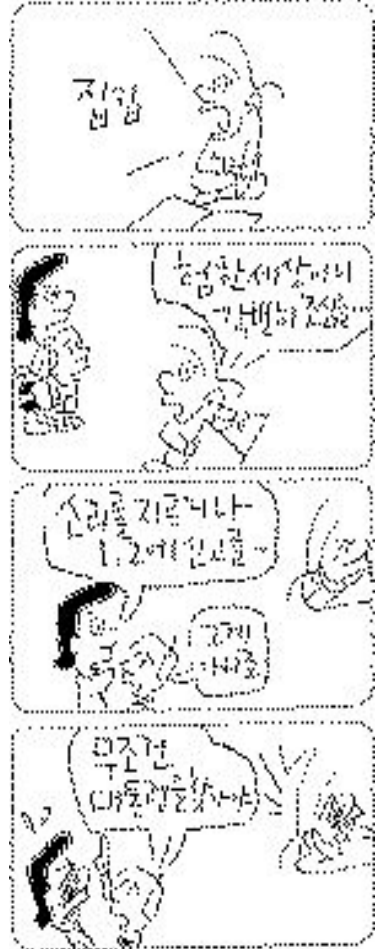
고물상을 낀 전선 전문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담양경찰은 2일 전기회사 등에서 전선을 훔쳐 팔아온 이모(54)씨 등 전선 전문절도단 4명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8월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김모(41)씨 소유의 전력회사에 몰래 들어가 시가 1천만원 상당의 전선 1.5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광주와 전남·북 일대를 돌며 20차례에 걸쳐 1억1천500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전선을 훔친 뒤 전선의 피복을 모두 벗겨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4)씨에게 구리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나원침 (7474) 김중두



다 좋은 건국·산업자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저렴 및 상담 환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공점 : 061) 337-0571

호주 여성, 할인점서 물건 '슬쩍'

○광주의 한 학원에서 근무 중인 호주인 아버지를 만나러 온 20대 호주 여성이 대형 할인매장에서 물품을 훔치다 적발돼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2일 대형할인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호주인 C모(여·26)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2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H할인매장 화장품 코너에서 2만2천원 상당의 립스틱과 매니큐어 등 화장품 4개를 훔치다가 주인 김모(여·43)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

○C씨는 두 달 전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90일짜리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광주에 왔는데, 경찰에서 "혼자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마음에 드는 립스틱을 보고 순간 탐이 나 실수를 하게 됐다"고 진술.

/이종형 기자 golee@

2008 호남예술제

전통의 융합예술제전 - 전국대회

진행기간 | 월·목·토요일·국악(2008년 4월4일(금)~11일(금))
피플·북춤·논술(2008년 5월1일(목)~ 9일(금))

진행장소 | 단양군(한양문화정보), <http://www.kwangju.co.kr>
무한·일문·장수리형

진행기간

4월4일(금)~11일(금)
5월1일(목)~9일(금)

진행장소

단양군(한양문화정보),
무한·일문·장수리형

주최 | 광주일보사

주관 | 문화재단

후원 | 단양군, 한양문화정보, 무한·일문·장수리형

문의처 | 061-337-0571